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간협, 간호법 제정될 때까지 서명운동 계속



간호사가 행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주세요!
동참하기 >

간호법 서명운동 계속 ... 간협 홈페이지에서 참여

대한간호협회가 전개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앞으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100만명 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간호사 회원 여러분과 전국의 지부와 산하단체, 간호대학, 의료기관 등 간호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간호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도간호사회가 중심이 돼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대장정을 펼쳤다. 대장정에 참가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기차역 광장을 비롯해 지역 축제현장, 전통시장, 대학캠퍼스 등을 누볐다. 국민들을 만나 홍보 리플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재외한인간호사 동참 오프라인-온라인 서명 통해 한마음 한뜻 모아

제주에서 서울까지 대장정 펼치며 서명운동 "국민건강 위해 간호법 제정되길" 지지 이어져

릿을 나눠주며 간호법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간호법 제정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설명하고 지지서명을 이끌어냈다. 전국 대장정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졌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물론 국민들과 간호사 가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들까지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간호법을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탤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힘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서명에 동참한 국민들은 "불철주야 애쓰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리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명자가 75만명 선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대한간호협회 내에 '백만인서명운동추진본부'(본부장 손혜숙 간협 이사)가 결성되면서 서명운동이 재점화됐다.

전국 각지에서 다시 서명자가 도착했고, 온라인 서명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결과 100만명을 돌파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6월 22일 오후 4시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었다.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부산힘찬병원 간호부(간호차장 주혜경)에서 참여했다.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춘기 병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전문간호인력 24시간 의뢰서비스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수원 다인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서영주)에서 참여했다. 사진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김숨미 수간호사와 간호사들.

2019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결정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3.4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6월 28일 열고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임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을 심의·의결했다.

간정심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각각 2.7%, 2.1%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로

인상률이 합의됐으며, 의원과 치과의 수가협상은 결정됐었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임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된다. 기존의 5인실 입원료가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된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을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확산'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의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oo@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가 중심이 돼 전국 대장정을 펼치며 국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았다.



Nursing Anne Simulator

Nursing Anne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플랫폼입니다.

주요 특징

- ✓ 무선 기능 및 독립형 설계
- ✓ 관절 움직임/운동 범위: 실제 환자와 동일한 케어 가능한 전체 관절 움직임 가능
- ✓ SimPad Plus 활용 심박수, SpO2, 혈압, 호흡수, 체온, ECG 및 etCO2를 표시
- ✓ 운영 체제: 자동 모드 및 수동 모드운영
- ✓ 자발호흡: 양측 또는 편측 흉부 상승
- ✓ 환자 관리/평가: 눈감박임 가능
- ✓ 맥박: ECG 동기화, 강도 조절가능
- ✓ 폐음: 설정 호흡수(0~60bpm)와 동기화된 가슴 및 등쪽 폐음 측정

주요 정보: 전신 여성 시뮬레이터, 기관절개관 튜브 실습 도구, 흉갈색 가발, 갈색 동공 세트, 기관절개관 튜브 실습 도구 및 주입 주사기, 장루 세트, 혈압 컵, 설치 안내서, 시뮬레이션된 혈액, 성인용 가운 및 빠른 설치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LLEAP 강사용 컴퓨터(태블릿, 러그드 태블릿, Laptop 혹은 All-in one)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Nursing Anne Simulator는 SimPad Plus/LLEAP 강사 컴퓨터로 작동되며 시뮬레이션된 환자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